

도시공원 자원봉사행동의 지속성 연구

-서울시 자원봉사단체를 사례로-

이준미* ·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Volunteering in Urban Park

Lee, Joon-Mee* · Lee, Kyu-Mo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Urban parks provide good services to the community, and they are enhanced by citizen participation. For that especially, organizational and continued volunteering can be a ke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factors on promoting the continuity of volunteering in voluntary associations of urban parks. Variables of continuity are continual will, continual time, and psychological continuance motive. To add to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inquiry about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that volunteers want to receiv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main participants were housewives with high education. Second, Continual will was influenced by gender, profession, the satisfactory degree for individual pursuit an ideal, and the degree of confidence with members. Third, Continual time was influenced by profession and individual network in community. Forth, Continual motive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network in community, the result-analysis behavior of related government organ, the degree of confidence and the degree of ties with members. Finally, Volunteers wanted to receive the volunteering expenses, the compensation about accident, and emotional recognitions.

In sum : to ensure the continuity of volunteering, first, recruiting of volunteers is demanded to select a major target group in the community. Second, a voluntary association helps to make confidence and ties with members. Third, the related government organ strives for volunteers to have a positive recog-

inition of the organ's attitudes, for the volunteer association to have a clearly distinguished area of action from the organ's one, and a co-operative system. Finally, an institution needs to be established to give emotional recognitions as well as volunteering expenses and a compensation for accidents.

Key Words : Urban Park, Organizational Volunteering, Volunteers, Continuity, Continual Will, Time and Motive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자원봉사자 활용 제도가 정부혁신 전략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이회태, 2001).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집합적 처리 노력의 매개체로 기능을 하여 결국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기에 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도시공공서비스란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를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정부가 의하여 공간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지리적·공간적 편의 한계를 지니는 지방재이자 비사적인 재화를 말한다(박용치, 1993).

도시공원은 대표적인 공공재, 즉 도시공공서비스 영역으로서, 시민참여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서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 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있어 조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그 활동에의 참여와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관·민이 공동생산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여 보고자 함이다.

II.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문헌연구

부성래와 유관수(1987)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제고와 욕구 충족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고, 자발성, 연대성, 무보수성, 창조성을 그 활동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자발성은 목적과 책임의식으로 능력·자원 유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결정함을, 연대성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연계나 응집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무보수성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지위 등으로 보상되지 않음을, 그리고 창조성은 적절한 대처책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무보수성, 자발성, 사회복지영역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 민간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조집단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보수성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전제되면서도 완화되어져,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교통비나 식사비 같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은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김백곤, 2002). 또한 주민의 산발적인 선의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전문가의 조직적·계획적인 지원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최근의 동향이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인식으로 지역사회 내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는 경향과도 맞물린다. 또한 활동영역의 확대로 전문성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자원봉사행동의 개념과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전문적인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렵사리 참여하게 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연구는 어떤 동인이 행동을 촉

발하고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동인이란 행동을 시작·유지시키는 힘 또는 그 행동의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참여 여부, 지속성, 참여 강도 등을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천희, 2002).

여기서 지속성의 경우, 과연 무엇을 지속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현재까지의 봉사시간과 앞으로의 봉사가능시간을 합친 봉사시간이나 월 평균 활동주기만을 지속성으로 보는 연구들(천희, 2002; 조휘일, 1991), 지속의지와 지속시간을 합친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김성중과 엄성호, 2002; 윤민혁, 2000)로 나눌 수 있다. 김백곤(2002)은 지속성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또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언급한다.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동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배경,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만족, 조직적인 특성 등이 설정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측정 변수로는 성, 나이,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이 주로 선정되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산층일수록 자원봉사활동률이 증가하며, 그 활동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백곤, 2002; 김준기, 2000).

동기는 참여동기와 지속동기로 구별되는데, 최근에는 지속동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참여동기 자체는 자원봉사자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반면, 지속동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의 관리 여하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백곤, 2002). 지속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보유해야만 하는 조직/기관들에게 특히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만족할 만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동기는 다시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등 개인적인 동기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익 추구의 행동으로도 보고 있다. 전신현(1999)은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감정이입, 도덕규범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망과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설정하여 개인성향뿐 아니라 지역관련 요인에 의해서도 자원봉사참여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창수(1996)는 지역사회 생활 추구, 직업 등에 유익한 지식/기술 습득, 지역사회에서 입은 혜택의 환원, 지역사회 일원이란 소속감 형성, 지역사회의 관심 기대, 지역사회의 이상 실현 등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동기로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동기로서,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인 만족이란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 조휘일(1991)은 심리적 참여동기로서 경험 욕구(실제적인 이득 및 자아성장), 사회적 책임감 욕구(이타적인 동기들), 사회적 접촉 욕구(친교 및 사회경험), 타인의 기대부응 욕구(의미 있는 주위사람 또는 조직의 압력), 사회적 인정 욕구(사회적 존경의 욕구), 사회적 교환 욕구(미래의 보상에 대한 욕구), 성취 욕구(개인적 성취) 등의 욕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높다는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참여동기 중 이기적인 욕구의 만족도가 지속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지속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개인의 심리적 욕구가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만족되는가에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동기요인 외에도 서비스 전달기관 특성 및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등 조직적인 변수 역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자 동료들 간의 관계, 수혜자(봉사 대상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기관의 태도에 대해 갖는 생각 등은 활동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인지도란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김백곤(2002)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이 정기 모임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중도 탈락자 집단보다 지속자 집단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희태(2001)는 지속성 확보에 기관에서의 인정과 보상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인정과 보상은 시상, 표상, 감사장, 행사초대 등 다양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도시공원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은 서울시 공원녹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 공원을 바탕으로 하여 단체를 결성,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 온 단체 소속의 개인들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상이 남산공원의 자원봉사자 모임인 남산사랑과 강동구 길동공원의 자원활동가 모임이다. 단, 본 연구는 두 단체간 비교점을 찾고자 함이 아니므로 집단간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조사영역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을 지속의지와 지속시간을 합친 개념으로 설정한다. 막연한 시점을 상정한 미래의 참여의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보다 구체적인 시점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의 참여의지, 즉 지속의지는 향후 1년 안의 참여의지를 묻는다. 지속시간의 경우 현재까지의 활동시간과 앞으로의 활동가능시간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가능시간을 개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으나, 응답자가 설문응답시간 지체로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고 미래에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주변상황 변화 여부를 고려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경향이 미래에도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자 한다. 즉, 향후 1년간의 활동가능시간은 현재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체를 통한 집단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정기적인 모임시간, 즉 정해진 참여시간이 있으며, 그 정기적인 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가 참여의 적극도를 얘기해준다. 그리고 그 정기적인 시간은 결국 활동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활동주기를 바탕으로 참여도를 추정함은 이런 활동시간과 참여의 적극도란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시간은 정기적인 참여주기를 바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김백근(2002)의 지속성 정의와 유사하다.

그런데 사례대상인 두 단체는 정례모임 주기가 다르

다. 따라서 단순히 월간 평균 참여주기를 상정함은 참여의 적극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단체에서 정해져 있는 월간 참여주기를 바탕으로 추정된 연간 참여일을 100으로 보고 개인의 참여주기를 그 상대값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속시간은 연간 정례모임일에 대한 상대적인 참여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지속성의 결과변인으로 지속의지와 지속시간을 상정하고, 향후 1년 안의 참여의지를 지속의지로 정의하며, 현재의 참여 경향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정기모임일에 대한 상대적 참여비율을 지속시간으로 본다.

지속성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변인이 지속동기라 보여진다. 기존 연구들은 지속시간과 지속의지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지속동기를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례적인 모임주기로 집단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단순히 지속시간과 지속의지만으로 지속성을 얘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재가 가해져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제재도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의 자발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지속성을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개인 스스로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타적인 감정이나 도덕규범 같은 참여동기는 규범적이며 고유한 특성인데 반해, 이 지속동기는 활동 중인 단체 속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이 보다 더 의미가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이 지속동기를 하나의 설명변수로만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성에 중요한 변수는 지속동기일 것이라고 보고, 지속동기를 지속시간과 지속의지의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함과 함께 지속동기 자체를 또 하나의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른 설명변인들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속동기에 대한 측정은 지속동기 항목들에 대한 조직 활동에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만족감으

로 측정된다. 결국 지속동기란 이기적인 동기와 욕구 충족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황적인 맥락이 이런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지속동기란 것으로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취일(1991)과 이창수(1996)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조직 활동이 개인에게 주는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고양시키는데 관련된 성취감, 공동체 일원이라는 소속감, 자아성장과 개인의 이상추구에 도움을 주는 정도, 유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도, 소속된 조직의 인지도로 인한 개인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충족도, 타인과의 친교를 통한 사회적 접촉도를 이기적인 동기, 즉 지속동기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은 성취감, 소속감, 이상추구도, 지식습득도, 사회적 인정도, 사회적 접촉도로 명명된다.

지속동기 외에 참여동기,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조직상황이 지속성에 대한 설명변인으로서 중요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 교육수준 등을 측정한다. 참여동기는 이타적인 동기, 이기적인 동기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동기를 조직 상황적인 맥락과 상관없는 동기들로 설정한다. 즉, 이타적인 동기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참여동기의 측정내용이 되며, 그 항목은 전신현(1999)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규범, 지역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친밀도와 협력도를 측정하는 연결망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각각은 감정이입, 도덕규범, 애향심, 연결망으로 명명한다.

조직상황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자원봉사자 스스로 관련 공원녹지 기관이나 수혜자들과의 상호협조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는 협력도로 명명된다. 관련 기관의 태도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관이 자원봉사자들과 정보교류를 잘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를 설정하고, 각각 정보교류도 및 성과분석도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동료들간 관계는 신뢰도로 측정되는데, 동료들의 태도와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과 동료들 간 감정적·정서적인 유대를 그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 각각은 믿음과 유대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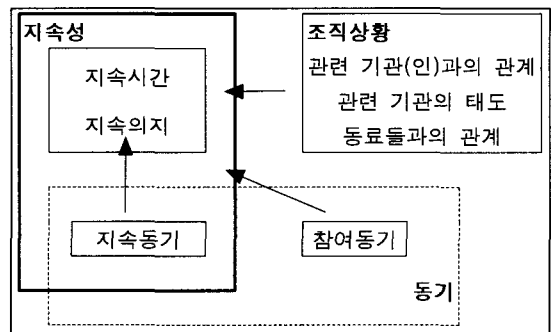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영역

최근 자원봉사 개념을 확장시키고 활동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향후 받고 싶은 내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여건의 반영과 함께 향후 어떤 유형이 유도체로 작용할 수 있는지 잠재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측정 항목들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포함하여 활동경비 제공, 사고나 불이익시 보상, 참여 및 실적 증명서 발급, 감사 편지 및 인사, 정기적인 정보 제공, 친목 행사 초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 학교 성적 및 취업/승진 점수에 반영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영역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영역별 측정변수는 표 1과 같다.

IV. 조사 분석 결과

자료(설문지) 수집은 2003년 10월 1일~31일 한달간 이루어졌으며, 남산사랑 44부, 길동 자원활동가 모임 21부로 총 65부가 회수되었다. 통계 패키지는 SPSS ver 10.0.7(Spss, Inc., 2000)를 사용하였다.

1. 기술적인 통계 분석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있어서 여성이 80%로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 이하는 없고 40대(37%), 30대(28%), 20대(20%), 50대 이상(15%) 순으로 청장년층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은 주부(45%), 사무/행정/관리직(19%), 전문직(15%), 학생(11%) 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7%), 200만원 미만(25%)의 순이고,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재학 포함)이 65%, 대학원 졸업(재학 포함)이 22%였다.

대체로 여성과,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을 가진 중산층의 참여율이 높으며, 그 연령층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대상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30~40대의 중산층 주부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도시공원이 지역사회에 물리적인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 보다 관심이 높은 주부층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시공원이 지역의 쾌적성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시설로서 쾌적함에 관심이 높은 중산층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고학력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 표 1은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활동 지속시간은 정기적인 활동주기를 빠짐없이 참여할 경우를 100%로 설정한 것에 대한 상대비로서, 그 평균값이 약 54%로 나왔다. 현재 정기모임 참여인원의 평균 참여율이 54%라는 것인데, 활동자들의 약 95%가 향후 지속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다는 점에서 이 평균 참여율의 경향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동기는 상한 5점 기준으로 볼 때, 감정이입(4.2), 도덕규범(4.2)이 높는데 반해 애항심(3.4), 연결망(3.2)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활동의 참여 자체는 이타적이 동기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지속동기는 대체로 높다(3.6~4.2점)할 수 있으며, 동료들 간의 믿음과 유대(4.1~6) 역시 높았다. 반면 관련 기관의 태도(2.5~7)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나왔다.

변수들 간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결과,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정보교류도와 성과분석도는 다른 변수들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참여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기관 내 성과분석 태도에 대해 갖는 생각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위 측정항목들을 해당 영역의 개념을 가진 상위 변수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표 1. 영역별 측정변수의 평균

영역		측정항목	평균	비고
지속성	지속시간	연간 총정기모임일에 대한 상대적 참여율	54%	연간정기 활동일 =100%
	지속의지	향후 1년간 재참여의지	95%	1=참여, 0=불참
동기	참여동기	감정이입	4.2	상한 5점
		도덕규범	4.2	상한 5점
		애항심	3.4	상한 5점
		연결망	3.2	상한 5점
	지속동기	성취감	4.1	상한 5점
		소속감	4.0	상한 5점
		이상추구도	3.8	상한 5점
조직상황	관련기관(인)과의 관계	협력도	3.6	상한 5점
		정보교류도	2.5	상한 5점
	관련 기관의 태도	성과분석도	2.7	상한 5점
		민음	4.6	상한 5점
	동료들과의 관계	유대	4.1	상한 5점

항목들 간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참여동기 영역은 0.607, 지속동기 영역은 0.818, 조직 영역은 0.440로 나타나 지속동기 영역을 제외하고는 상위 영역의 새로운 변수들로 조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분석

1) 지속성의 평균 차 검증

우선 설명변인들에 따른 지속의지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과의 χ^2 검증과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중 성별($\chi^2=12.581$, $df=1$, $Sig.=0.000$)과 직업($\chi^2=11.728$, $df=4$, $Sig.=0.01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2. 이상추구도와 믿음에 따른 지속의지 평균차

a. 지속의지와 이상추구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참여	62	3.806	0.807	63	2.409*
불참	3	2.667	0.577		

* $p < 0.05$

b. 지속의지와 믿음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참여	62	4.597	0.556	61	-5.701***
불참	3	5.000	0.000		

*** $p < 0.001$

결과를 보였고, 여성 그리고 학생, 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원이 재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영역들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는 지속동기 영역 중 이상추구도($t=2.409$, Sig.=0.019)와 조직상황 영역 중 믿음($t=-5.701$, Sig.=0.000)이었다(표 2 참조).

재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의지가 없는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이상추구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가 높았다. 지속의지와 믿음 사이에 음(-)의 관계를 보여, 믿는 정도는 높지만 지속의지는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속의지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는 이상추구도이다.

설명변인들에 따른 지속시간 수준간의 평균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분산분석 모형의 F검증 결과, 99%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형(설명력 49%)은 타당하다(표 3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은 사회경제적인 배경 중 직업($F=3.420$, Sig.=0.018)과 참여동기 중 개인의 지역사회 연결망($F=5.390$, Sig.=0.026)이다. 즉, 직업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연결망 정도 차이에 따라 참여비율의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연결망과 지속시간은 양(+)의 상관성을 보여, 연결망의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도시공원이 물리적 기반 시설로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 지속동기에 대한 영향분석

표 3. 지속시간 수준간 ANOVA 분석

구분	제Ⅲ유형 제공합	자유 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76366.311 ^a	27	2828.382	3.255	0.000***
절편	5883.179	1	5883.179	6.771	0.013*
성별	3068.402	1	3068.402	3.531	0.068
연령	5838.212	3	1946.071	2.240	0.100
직업	11886.694	4	2971.673	3.420	0.018*
월평균소득	1448.888	2	724.444	0.834	0.442
교육수준	977.894	2	488.947	0.563	0.574
감정이입	743.228	1	743.228	0.855	0.361
도덕규범	1643.436	1	1643.436	1.891	0.177
애항심	988.033	1	988.033	1.137	0.293
연결망	4683.464	1	4683.464	5.390	0.026*
성취감	2894.460	1	2894.460	3.331	0.076
소속감	2379.747	1	2379.747	2.739	0.106
이상추구	784.988	1	784.988	0.903	0.348
지식습득	3.113	1	3.113	0.004	0.953
사회인정	99.602	1	99.602	0.115	0.737
사회접촉	549.963	1	549.963	0.633	0.431
협력	3093.150	1	3093.150	3.560	0.067
정보교류	286.645	1	286.645	0.330	0.569
성과분석	1984.085	1	1984.085	2.284	0.139
믿음	225.133	1	225.133	0.259	0.614
유대	2003.725	1	2003.725	2.306	0.137
오차	32148.304	37	868.873		
합계	297515.000	65			
수정 합계	108514.615	64			

a) $R^2 = 0.704$ (수정된 $R^2 = 0.488$) * $p < 0.5$, *** $p < 0.001$

자원봉사자가 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 지속동기는 상황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상황은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확보 노력은 이런 지속동기 부여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도 활동의 참여 수준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조직 영역의 항목이 보

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지속 의지 여부에는 지속 동기 영역의 항목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동기, 즉 개인의 욕구와 동기의 충족도에 미치는 다른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신뢰도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영역의 각 항목들의 점수를 총합한 후 항목수로 나눈 값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고, 이 변수를 지속동기라 명명하여 결과변인으로 투입했다. 다른 영역은 그 신뢰도 계수가 낮아 항목들을 그대로 설명변인들로 투입했다.

최종 회귀모형에 진입된 독립변수들은 참여동기 영역 중 지역사회 연결망, 조직 영역 중 관련 기관 내의 성과분석도, 동료들 간의 믿음과 유대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점검하여 보면, 결과변인과 설명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높으며(Pearson R=0.660), 설명변인들에 의한 결과변인의 설명력은 약 40%(수정된 R²=0.397)이다. 회귀모형의 선형관계에 대한 F검정과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본 회귀모형은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에 진입된 설명변인들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면, 성과분석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와 협력도가 높을수록, 관련 기관의 성과분석에 관한 태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할수록, 그리고 동료들 간의 믿음과 유대의 정도가 강할수록 지속동기의 정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관계의 크기를 알아보면, 결과변인의 값 증가에 믿음(0.375)과 유대(0.255)가 큰 기여를 하며, 그 다음으로 성과분석(-0.169), 연결망(0.148)이다. 이상의 결과로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지속동기} = 1.134 + 0.148 \times \text{연결망} - 0.169 \times \text{성과분석도} + 0.375 \times \text{믿음} + 0.255 \times \text{유대}$$

3) 관련 기관/조직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보상

향후 대가로서 받고 싶은 것을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속의지가 없어도 원하는 인정/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유인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지속의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계처리하였다.

복수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활동경비제공(18%)과 사고시 보상(18%), 감사편지/인사(16%), 전혀 없다(12

표 4. 지속동기의 회귀모형 결과

a. 모형 요약

종속변수	R	R ²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지속동기	0.660	0.435	0.397	0.5134

b. 분산분석

종속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도
지속동기	모형	12.174	4	3.043	11.549	0.000***
	잔차	15.812	60	0.264		
	합계	27.986	64			

***p<0.001

c.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모형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T	유의도
지속 동기	상수	1.134	0.590		1.922	0.059
	연결망	0.148	0.073	0.198	2.034	0.046*
	성과분석	-0.169	0.069	-0.240	-2.450	0.017*
	믿음	0.375	0.136	0.312	2.765	0.008**
	유대	0.255	0.078	0.372	3.277	0.002**

*p<0.05, **p<0.01

표 5. 관련 기관/조직에서 받고 싶은 인정/보상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활동경비 제공	27(18.1)	0.89(1.17)
활동 중 사고시 보상	27(18.1)	0.78(1.19)
참여/실적 증명서 발급	8(5.4)	0.42(0.93)
조그만 상품/선물	2(1.3)	0.11(0.40)
감사 편지/인사	24(16.1)	0.98(1.26)
정기적인 정보	15(10.1)	0.62(0.98)
친목 행사 초대	14(9.4)	0.63(1.0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13(8.7)	0.63(1.07)
학교, 취업/승진 점수예의 반영	1(0.7)	0.06(0.39)
없다.	18(12.1)	0.69(1.06)
합계	149(100)	

%), 정기적인 정보(10%), 친목행사 초대(9%), 사회적 인정의 분위기(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성적이나 취업/승진점수 반영(1%), 상품/선물(1%), 참여/실적증명서(5%) 등은 저조하였다. 또한 중요도 순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감사편지/인사(0.98), 활동경비 제공(0.89), 사고시 보상(0.78), 없다(0.6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체로 활동 중의 제반 경비/보상과 활동 후의 심리적·정서적인 인정을 바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이나 친목행사 초대를 바라는 응답도 높게 나와 계속 그 기관이나 조직에 관련되고 싶어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관련 기관/조직 입장에서 볼 때 활동의 지속 혹은 재개에 있어 중요한 유도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혀 없음의 비중이 높음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특성인 무보수성을 일면 보여주고 있다. 이 항목의 응답자 대부분이 활동 지속의지가 있으며, 활동 지속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 응답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가시적인 대가인 증명서나 점수 반영이나 상품 같은 것들의 상대적인 응답 비율이 낮다는 점으로도 일면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떤 큰 대가보다는 심리적인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실제 활동경비 등에 대한 요구는 무보수성에 위반되지 않는 항목들이며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면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와도 일치되고 있다.

V. 결론

도시공원에서의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그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주부의 참여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도시공원 자원봉사활동자 모집대상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다.

둘째, 이타적인 참여동기의 값이 높게 나타나, 공원 녹지란 특정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특징인 이타성이 그 활동 배경이 되고 있다.

셋째, 현재 활동자 95%가 지속의지가 있고, 지속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성별, 직업, 개인의 이상추구에 대한 만족도, 동료들 간 믿음이었다.

넷째,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직업과 개인의 지역사회연결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와 협력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활동의 참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물적 기반을 둔 도시공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차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매꾸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다섯째, 단체를 통한 이기적인 욕구의 충족도가 높아 지속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동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결망, 관련 기관의 성과 분석 태도, 동료들 간의 믿음과 유대였다.

여섯째, 관련 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며, 지속성의 변수들과도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활동의 자발성과 독립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침해의 상대적인 체감도가 더 클 수 있다. 혹은 실제로 관련 기관의 자원봉사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활동참여율이 높아져 관련 기관과의 접촉빈도가 높아져 이를 정확히 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곱째, 관련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보상 내용은 활동 중 경비나 사고시 보상, 그리고 활동 후의 심리적인 인정을 주로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선 지역사회내 도시공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자 모집의 주된 초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활동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동료들 간의 믿음과 유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은 분명한 활동 영역의 구분과 아울러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은 기관의 태도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면밀한 검증과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리고 무보수성에 위반되지 않는 활동 경비나 사고시 보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서적인 인정 제도를 확보함이 지속성에 중요한 유도제

로 작용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은 지속적인 동기 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지속동기가 바로 지속의지와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기 부여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부여되면 지속성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대상인 두 단체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지 않음을 전제하였지만, 공원이 갖는 속성상 그 물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각각 이뤄짐과 동시에 그 두 개가 통합·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그 상호적인 영향을 밝힐 수 있는 연구·분석 방법이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용문헌

1. 김백곤(2002)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 김성중, 엄성호(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한국공공정책학회지 11: 59-82.
3. 김준기(2000)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33-457.
4. 박용치(1993)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주민참여 -공생산과 주민평가.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개발연구소 연구논총 19: 85-100.
5. 부성래, 유관수(1987)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 Volunteerism. 서울: 소문출판사.
6. 윤민혁(2000) 노인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창수(1996)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지 21(2): 71-93.
8. 이희태(2001)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지 5(3): 155-177.
9. 전신현(1999) 지역연결망 및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8: 234-254.
10. 조휘일(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6: 117-150.
11. 천희(2002) NGO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강도와 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 고 접 수 : 2004년 1월 29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3월 30일

4인의명 심사필